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무산 위기

무리한 후보 만들기...예견된 파행

열린우리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김재균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견을 모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다. 중앙당도 지역 국회의원의 이같은 기류와 뜻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조영택 예비후보가 사실상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3~4개월 전부터 당시 국무조정실장인 조 예비후보를 시장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영입 후에도 조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정동영 당 의장 등 중앙당도 이를 도왔다.

특히 조 예비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가 그 도를 넘어서자 광주지방정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 예비후보를 최종 광주시장 후보로 만들 것이라 예측이 난무했다. 때문에 김 예비후보 측에서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써왔다.

◇계속된 조영택 후보 만들기=조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8일 국무조정실장을 사임, 다음날 광주시로 주민

국회의원들 度 넘은 조영택 지원 오늘 최고위원회의 큰 파문 일 듯

등록을 옮기면서 지방선거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전략공천만을 염두에 뒀고 경선은 생각지도 않았다. 양형일·김태홍 의원 등도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강기정·염동연 의원 등은 전략공천을 반대했다.

결국 조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던 '100% 시민여론조사'가 경선방법으로 선택됐다. 또 여론조사 시기도 인지도가 낮은 조 예비후보를 위해 최대한 늦췄다.

광주지역 의원들의 조 예비후보 지지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달 26일 정동영 의원은 조 예비후보 공천선거대책본부장, 김태홍 의원은 시민사회본부장, 양형일 의원은 조직본부장, 지병문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 김동철 의원은 홍보본부장 및 대변인, 강기정 의원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또 지난 7일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영택 예비후보가 속도감 있는 광주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적합한 인물임을 거듭 확신한다"며 "국회의원 일동은 광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조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실질적 전략공천 의도=그러나 조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뜻대로 경선구도가 짜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김 예비후보를 해당행위자로 몰아간 공개된 여론조사 합의를 내용으로 "시기 공개"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일반적 평가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선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의원들의 속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조 예비후보가 같은 날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국회의원과의 전 교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반발=김 예비후보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김 예비후보 편에 서온 김근태 최고위원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12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 측은 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합의서 내용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당의 여론조사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참관인 여부, 질문지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조 후보의 입장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니 지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또 "광주시장 후보 선출은 중앙당에서 13일까지 발표하기로 한 바 있어 이를 남는 상황이므로 '시기 공개'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역선택 가능성 또한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조 예비후보에게 밀린 적이 없었던 우리당이 걱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여론조사 거부 및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현재회장 후원금 정치권 파문 확산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삼흥그룹의 김현재 회장(47)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의원 6명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염동연 의원(광주 서구)과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이 김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금 납부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3월

여당 의원 6명에 3,990만원 전달

부터 지난해까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6명에게 도합 3,99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여당 정치인은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 문학진, 박영선, 염동연, 유선호, 이계안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2년간 300만원의 후원

금을 받았고, 염동연 의원은 2005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유선호 의원은 "김 회장이 지역구 출신(영암)이라서 후원금을 받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염동연 의원은 "평소 아는 사이며 후원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이날 "당에 제보가 들어오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전모를 밝히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

11일 광주를 방문한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백낙청(68) 상임대표는 "광주는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상징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곳"이라며 "통일 대축전이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한 편에서는 축전의 광주 개최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역이거주의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며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려준 덕분에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떼는 행사'를 광주에서 열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어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방문할 북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일부 대답은 위원회 정회원 사무처장 등 실무진이 대신 했다.

▲북측이 이번 축전의 개최지를 광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던데.

-광주개최가 꼭 북한이 요구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우리 남측위원회에서도 3년 전부터 광주에서 축전을 열자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지난해 열린 8·15통일대축전을 광주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8·15대축전은 대규모 행사라 중앙에서 열자고 남과 북이 합의, 광주 개최가 무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올 6·15 대축전은 광주에서 열자는 데 남과 북이 압목적으로 정한 상태였고, 북측이 특별한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개최가 성사됐다.

▲북측 대표단이 행사기간 동안 국립 5·18 민주묘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가 11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통일대축전의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통일대축전 광주 개최는 당연 北대표단 5·18묘지 참배할 듯”

지를 참배할 계획은.

-우리가 광주에서 축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으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북측 대표단의 5·18묘지 참배였다. 아직 북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얘기를 나눴는데, 큰 거부반응이 없어 성사될 것으로 본다. 오는 22일 개성에서 추가협의를 할 때 북측의 참배가 결정될 것 같다.

하지만 서로 문화가 달라 참배 방식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막식 때 열리는 경비행기시범축하비행은 무엇인가.

-북측 대표단은 6월 14일 오전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광주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북측 대표단 중 1명은 평양에서 출발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온다. 이 비행기는 광주 상공을 맴돌며 개막식을 축하하는 비행을 할 예정이다. 일종의 '이벤트' 인 셈이다.

경비행기의 조종은 남측 조종사가 한다. 경비행기에 탈 북측 인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종사와 이성(異姓)인 인사가 탈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축전 개최를 위해 광주시나 시민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먼저 북측 대표단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이들의 숙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북측 대표단의 숙소는 무등파크호텔이 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가 이곳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또 북측 인사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축전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북측 대표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측 대표단의 예술공연과 '부문상봉행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이 함께 북측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광주와 목포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할 예정이다. 북측 공연단은 시·도민들에게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와 민요, 계몽가요 등을 선보일 것이다. 특히 이번에 광주를 찾은 공연단은 북한에서 'A급'으로 알려진 예술단체이다.

'부문상봉행사'는 남과 북 대표단이 여성·노동·종교 등 7개 단체로 나뉘어 개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다. 우리는 상봉행사를 공장이나 교회 등 현장에서 진행하고 싶지만, 북측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Rinnai **SunWell**

린나이와 옷깃만 스쳐도 선물의 인연이 생긴다!

200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물불 안 가리는 첫번째 선물

린나이에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정품권을 드립니다

- 1회: 3000원 가량의 선물
- 2회: 5000원 가량의 선물
- 3회: 10000원 가량의 선물
- 4회: 15000원 가량의 선물

물불 안 가리는 두번째 선물

린나이에 방문만 하셔도 모든 분께 정품권을 드립니다

- 1회: 10000원 가량의 선물
- 2회: 20000원 가량의 선물
- 3회: 30000원 가량의 선물

문의: 1588-0100, 02-2222-1111 | 웹사이트: www.rinnai.co.kr

정신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 오븐 케시피 강연대회 -